

연행기
선필사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와 천지간에 남자(男子) 되기 쉽지 않다
 평생에 이내 몸이 중원(中原)* 보기 원하더니
 병인년(丙寅年) 춘삼월(春三月)에 가례책봉(嘉禮冊封)* 되
 었으니
 국가(國家)의 대경(大慶)이요 신민(臣民)의 복록(福祿)이라
 상국(上國)에 주청(奏請)*할 새 삼사신(三使臣)을 내었으니
 상사(上使)에 유승상(柳丞相)이요 서시랑(徐侍郎)은 부사
 (副使)로다
 행중어사(行中御使) 서장관(書狀官)은 직책이 중할시고
 겸집의(兼執義)에 사복판사(司僕判事) 어영낭청(御營郎廳)
 되었으니
 시년(是年)이 이십오라 소년공명(少年功名) 장하도다
 하사월(夏四月) 초구일(初九日)에 배표일(拜表日)*을 정하
 였네
 성정각(誠正閣)에 입시(入侍)하고 정중(鄭重)할사 왕명(王
 命)이여
 협양문(協陽門)에 하직(下直)하고 인정전(仁政殿) 배표(拜
 表)하니
 장악원(掌樂院) 일등악(一等樂)과 누른 의장(儀裝) 벌여
 세워
 용정자(龍亭子) 앞세우고 백관(百官)이 뒤따른다
 숭례문(崇禮門) 내달아 모화관(慕華館) 사대(查對)하고
 무악재(毋岳-) 너머 서서 홍제원(弘濟院) 다다르니
 재상(宰相) 어른 명사(名士) 친구 문객(門客)이며 청직(廳
 直)이며
 전별차(錢別次)로 나와보고 잘 가라고 당부하네
 잘 있으라 대답할 제 면면(面面)이 초창(悄愴)*하다
 좌차(座車)를 올라타니 일산(日傘)이 높이 떴다
 권마성(勸馬聲) 한 소리에 앞길이 몇천 리나
 집안을 생각하니 심회(心懷)도 창연(惘然)*할사
 흰당(萱堂)에 백발노인(白髮老人) 생양가(生養家)로 피서
 있고

청춘의 젊은 아내 금슬(琴瑟)이 남다르다
 무형제(無兄弟) 혈혈독신(孑孑獨身) 외롭다다 이내 몸이
 원로(遠路)에 떠나가니 가사(家事) 부탁할 곳 없다
 봉명(奉命)이 지중(至重)하니 무가내하(無可奈何)* 하릴없다
 삼각산(三角山) 바라보고 몇몇 번 탄식이나
 - 홍순학, 「연행가」 -

* 중원: 중국 땅.
 * 가례책봉: 국왕이 혼인을 함.
 * 상국에 주청: 청(淸)나라의 승인을 청함.
 * 배표일: 중국에 보낼 표문(表文)을 임금에게 받는 날짜.
 * 초창: 근심스럽고 슬픈 모양.
 * 창연: 몹시 섭섭하고 서운함.
 * 무가내하: 어찌할 수가 없게 됨.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밝기를 기다려서 책문(柵門)으로 향해 가니
 목책(木柵)으로 울울 하고 문 하나를 열어 놓고
 봉황성장(鳳凰城長)* 나와 앉아 인마(人馬)를 점검하며
 차례로 들어오니 문고 경계함이 엄숙하고 철저하다
 녹색 창과 붉은 문의 여염집은 오색이 영롱하고
 화려한 집과 난간의 시가지는 만물이 변화하다
 집집마다 호인(胡人)들은 길에 나와 구경하니
 옷차림이 괴이(怪異)하여 처음 보기에 놀랍도다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땡아 늘어뜨려
 당사실(唐絲-)로 땡기하고 마래기를 눌러 쓰며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질 한 번 아니하여
 이빨은 황금빛이요 손톱은 다섯 치라
 검은빛의 저고리는 것이 없이 지었으며
 옷고름은 아니 달고 단추 달아 입었으며
 아청(鴉靑)바지 반물 속것 허리띠로 눌러 매고
 두 다리에 행전(行纏) 모양 타오구라 이름하여
 발목에서 오금까지 가뜩하게 들이 끼고
 깃 없는 청(靑) 두루마기 단추가 여럿이요
 좁은 소매 손등 덮어 손이 겨우 드러내고
 두루마기 위에 덧저고리 입고 무릎 위에는 슬갑이라
 곱방대 옥 물뿌리 담배 넣는 주머니에
 부시까지 껴서 들고 뒷짐을 지는 것이 버릇이라
 사람마다 그 모양이 천만인이 한 빛이라
 소국 사람 온다 하고 저희끼리 지저귀며
 무엇이랴 인사하나 한 마디도 모르겠다
 계집년들 볼 만하다 그 모양은 어떻더냐
 머리만 추켜올려 가르마는 아니 타고
 뒤통수에 모아다가 맵시 있게 수식(首飾)하고
 오색으로 만든 꽃은 사면으로 꽃았으며
 도화분(桃花粉) 단장(丹粧)하여 반쯤 취한 모양같이
 불그스레 고운 태도 눈썹 치장을 하였고
 귀밑머리 고이 끼고 붓으로 그렸으니
 입술 아래 연지(胭脂)빛은 붉은 입술 분명하고
 귓방울 뚫은 구멍 귀고리를 달았으며
 의복을 불작시면 사나이 제도로되
 다홍(多紅)빛 바지에다 푸른빛 저고리요
 연두색 두루마기 발등까지 길게 지어
 목도리며 소매 끝동 꽃무늬로 수를 놓고
 품 너르고 소매 넓어 풍신(風身) 좋게 떨쳐 입고
 옥수(玉手)의 금반지는 외짝만 넓적하고
 손목에 옥(玉)고리는 굵게 사려 둥글구나
 손톱을 길게 길러 한 치만큼 길렀으며
 발 맵시를 불작시면 수당혜(繡唐鞋)를 신었으며
 청나라 여자는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같으나
 한족(漢族)의 여자는 발이 작아 두 치쯤 되는 것을
 비단으로 꼭 동이고 신 뒤축에 굽을 달아
 위뚱비뚱 가는 모양 넘어질까 위태롭다
 그렇다고 웃지 마라 명(明)나라 끼친 제도

저 계집의 발 한 가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
 아이들도 나와 구경하느라 주렁주렁 물려 섰다
 이삼 세 먹은 아이 어른 년이 추켜 안고
 오류 세 되는 것은 앞뒤로 이끈다
 머리는 다 깎아다 좌우로 한 줍씩
 뽕죽하니 따았으며 붉은 당사(唐絲)로 땡기하여
 복주감투 마래기에 채색 비단 수를 놓아
 검은 공단(貢緞) 선을 둘러 붉은 단추 꼭지하고
 바지며 저고리도 오색으로 무늬를 놓고
 배래기라 하는 것은 보자기에 끈을 달아
 모가지에 걸었으니 배꼽 가린 게로구나
 십여 세 처녀들은 대문 밖에 나와 섰네
 머리는 아니 깎고 한 편 옆에 모아다가
 쪽지는 머리 모양처럼 접침접침 잡아매고
 꽃가지를 꽃았으니 풍속이 그러하다
 호호백발(皓皓白髮) 늙은 년도 머리마다 채화(綵花)로다
 - 홍순학, 「연행가」 -

* 봉황성장: 봉황성(鳳凰城)의 우두머리 관리.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낭자산(狼子山) 저문 구름 마천령(摩天嶺) 새벽바람
 산곡간(山谷間) 험한 길에 사오 일 나오다가
 요동벌(遼東-) 칠백 리가 호호망망(浩浩茫茫)* 터졌으니
 지세(地勢)가 평포(平鋪)하여 산 하나가 아니 된다
 사면으로 바라보니 방향을 모르겠다
 동서남북 묘망(渺茫)함이 하늘 끝이 저러한가
 만경창파(萬頃蒼波) 바다이나 육지가 분명하다
 운무중(雲霧中) 구름이나 청명(淸明)함이 정녕(丁寧)하다
 이렇듯 광활세계(廣闊世界) 평생에 처음 보니
 대장부 넓은 마음 저렇듯 활여(豁如)하고
 영웅의 큰 기운이 이렇듯 쾌(快)하리라

(중략)

광녕점(廣寧店) 찾아 나와 십삼산(十三山) 향해 가니
 이상하다 저 산속에 금우동굴(金牛洞窟)이 있어
 옛적에 구리소가 그 굴에서 나왔다네
 석산참(石山站) 지나가니 화초석(花草石)이 기이하고
 대릉하(大陵河) 다다르니 물빛도 적막(寂寞)하며
 풍세(風勢)는 위름(危懼)하여 흥흥(洶洶)한 물결이라
 슬프다 대명(大明) 적에 유장군(劉將軍) 수십만병(數十萬兵)
 일시에 함몰(陷沒)하여 이 물에 빠졌다니
 마침 이리 지날 적에 어찌 아니 창감(愴感)하랴
 소릉하(小凌河) 건너서서 송산(松山) 행산(杏山) 지나가니
 오호도(嗚呼島)라 하는 섬이 탑산소(塔山所)서 바라된다
 제(齊)나라 전횡(田橫)이가 한고조(漢高祖)를 피하여서
 저 섬에 산다 함을 옛글로 들었으며
 주사하(朱沙河) 건너서서 조리산(罩羅山)을 지나서니
 구혈대(嘔血臺)라 하는 바위 쌍석성(雙石城)에서 쳐다된다
 대명장(大名將) 원승환(袁崇煥)이 청병(淸兵)을 대적하되
 노라치 달아나다 피 토하던 곳이라데
 영원성내(寧遠城內) 들어가니 조가(祖哥)의 두 패루(牌樓)가
 의의(猗猗)히 마주 있어 저렇듯 장하도다
 들으니 대명(大明) 때에 영원백(寧遠伯) 조대수(祖大壽)가
 형제 세록지신(世祿之臣)으로 변방(邊方)에 공 세우매
 나라에서 정문(旌門)하고 패루(牌樓) 둘을 세우시고
 충렬(忠烈)을 표(表)하시니 편피국은(便彼國恩) 하였으되
 무도(無道)한 조가형제(祖哥兄弟) 그 후에 배반하여
 청나라에 투항(投降)하니 부끄럽다 저 패루(牌樓)여
 기교(奇巧)한 저 패루는 의연(依然)히 남아 있다

- 홍순학, 「연행가」 -

* 호호망망: 바다나 호수(湖水)가 끝없이 넓고 멀어서 아득함.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양문(朝陽門) 들어가니 북경 장안 동문(東門)이라
 굽은 성 삼층 문루(門樓) 사층 포루(砲樓) 굉장하고
 길가의 여염(閭閻)들은 단청(丹青)한 집 즐비(櫛比)하고
 네거리 시전(市塵)들도 도금(鍍金)한 집 무수하다
 안목(眼目)이 당황하고 정신이 황홀한데
 옥하수(玉河水) 다리 건너 해동관(海東館)* 들어가니
 상방(上房) 처소(處所) 지나쳐서 부방 처소 뒤에 있고
 그 뒤에 삼방(三房) 처소 다 각각 찾아드니
 칸* 앞에 샷자리로 둘러막고 문을 내어
 방처럼 꾸며 놓고 백능화(白菱花)로 도배하며
 화문석(花紋席)에 포진(鋪陳)하여 거처하기 정쇄(精灑)*하다
 하유월 초육일에 오늘부터 며칠이나
 지리하고 심한 극열(極熱) 이 고생 어찌하리
 삼천 리 멀고 먼 길 몇 달 만에 득달(得達)하여
 큰 병 없기는 천행(天幸)이나 노독(路毒)이 없을쏘냐
 사지(四肢)는 날연(荼然)하여 백해(百骸)가 자통(刺痛)이라*
 우중(又重)지 통음(痛飲)으로 곤비(困憊)한 중 괴롭도다
 질통(疾痛)에 호부모(呼父母)*는 인생의 상(常)*이거늘
 만리타국 외로운 몸 집 생각도 그음 없다
 태행산(太行山) 흰 구름은 적인걸(狄仁傑)의 효성이요
 사가보월청소립(思家步月清宵立)*은 두자미의 회포로다
 옥화관(玉華館) 깊은 밤에 잠 없이 홀로 깨어
 푸른 하늘 쳐다보니 유유(悠悠)한 창천(蒼天)이며
 북두칠성(北斗七星) 삼태성(三台星)은 전에 보던 저 별이요
 명랑한 밝은 달은 예 보던 저 달이라
 우리 집 흰당(萱堂) 앞에 저 별 저 달 비추려니
 집에서 바라보고 내 생각 하시리라
 별과 달은 명명(明明)하며 응당 소식 알리로다
 소식을 물어보자 장천(長天)이 묘망(渺茫)*하니
 흐린 빛을 따라와서 몽혼(夢魂)*이 의의(依依)*하다

- 홍순학, 「연행가」 -

- * 해동관: 우리나라 사신 일행이 머물던 곳.
- * 칸: 온돌.
- * 백해가 자통이라: 온 몸의 뼈가 찌르는 듯이 아프다.
- * 질통에 호부모: 아프면 부모를 찾는 것.
- * 상: 예삿일.
- * 사가보월청소립: 달빛 속에 거닐며 집 생각에 잠 못 듦.
- * 묘망: 끝없이 넓고 아득함.
- * 몽혼: 꿈속의 혼.
- * 의의: 기억이 어렵듯하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산(西山)이 좋다 함은 들은 지 오래더니
 신유년(辛酉年) 서양국 놈 작변(作變)하여
 아까운 해전대궐 몇 천 간 좋은 집을
 모두 다 불을 놓아 일망무제(一望無際) 터뿐이라
 보기에 수창하여 광색(光色)이 쓸쓸하다
 평지에 조산(造山)하고 괴석 가산(假山) 쌓아
 기암괴석 층층하고 고봉준령(高峰峻嶺) 중중(重重)하다
 아름다운 푸른 봉은 산기(山氣)가 요조(窈窕)하고
 그윽한 흰 바위는 동운이 영롱하다
 십여 리 뻗친 산세 서산이 저기로다
 산곡 틈틈이와 언덕 위에 곳곳으로
 여기저기 집이 있어 배포도 장한지고
 화반석(花斑石) 삼층 월대 저기는 무슨 누각 터며
 백옥으로 새긴 섬돌 저기는 무슨 정자 터인가
 채색 기와 부스러져 와류 더미 태산 같고
 보패 집물(寶貝什物) 불에 타서 잿더미는 몇 곳이나
 백 간 들보 침향 도리 진주 주렴(珠簾) 산호 탑이 매운 재가
 되었구나

(중략)

곳곳이 섬이 있어 주루채정(朱樓彩亭) 몇 곳인지
 십칠교 긴 다리는 섬으로 건너가니
 넓이는 삼 간이요 길이는 칠십여 간
 좌우의 옥난간에 돌사자는 간간 있고
 다리 아래 굽어보니 열일곱 홍예(虹霓) 구멍
 한 홍예가 얼마만 한지 우리나라 남대문만
 아무리 큰 배라도 그 구멍으로 다닌다네
 연못가에 구리 소는 어찌하여 누웠으며
 섬 속의 층층월대 동정유승(洞庭猶勝) 정자 터라
 남편 섬에 들어가는 굽은 다리 놓았으니
 옥으로 높이 쌓아 길로 치면 수십여 장
 층층계야 십여 층 한 마루에 올라서서
 또 층층계 사십여 층 넘어서 내려가니
 그 안은 섬이라 다리 구멍 볼작시면
 둥그런 홍예문이 높기도 굉장하다
 아무리 긴 돛대도 세운 채로 드나들며
 좌우의 옥난간도 다리와 같이 굽어
 백룡이 오르는 듯 멀리 보매 더욱 좋다
 서산 구경 다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
 처음 볼 때 당황하여 안광(眼光)이 희미하더니
 자세히 보매 사치함이 심계가 자연 방탕
 상천옥경(上天玉京)* 집 좋아도 이러할 수 전혀 없고
 왕모요지(王母瑤池)* 좋다 해도 저렇듯 못하리라
 아무리 구변이 좋다 해도 형용을 다 못하니
 신유년 회록(回祿)* 이후 오히려 저렇거든
 그전의 전성시야 오죽이 장할쏘냐
 천하 재물 허비하고 백성 인력 궁진(窮盡)하여
 쓸데없는 공사극치(窮奢極侈) 이것이 무슨 짓이고
 진시황의 아방궁은 초인(楚人)이 불 지르고

송나라 옥정궁은 천화(天禍)로 재앙 나니
 전감(前鑑)*이 소소(昭昭)하여 하늘의 이치가 마땅하도다
 - 홍순학, 「연행가」 -

- * 상천옥경: 하늘 위 옥황상제가 사는 곳.
- * 왕모요지: 전설상의 선녀인 서왕모가 거처하는 곤륜산 꼭대기의 아름다운 연못.
- * 회록: 불이 나는 재앙. 또는 불로 인한 재난.
- * 전감: 거울로 삼을 만한 지난날의 경험이나 사실.